

원희룡 장관, 아동주거지원 위한 “빈틈없는 주거복지” 강조

- 12일 시흥시 저소득 다자녀가정·주거복지센터 찾아 아동 주거 복지 강화 의지 표명 -

□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7월 12일(화) 민생행보로 경기도 시흥시에 위치한 저소득 다자녀가정과 주거복지센터를 방문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, 아동주거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적극 표명하였다.

○ 이날 원 장관은 미성년 자녀 네명을 양육하면서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한부모가정을 방문하여 주거관련 어려움을 청취하였다.

○ 또한, 인근에 있는 주거복지센터에 들러, 센터 관계자들과 아동 주거지원 강화를 위한 여러 의견을 나눴다. 주거복지센터는 주거취약계층의 공공임대주택 이주·정착 등 주거상향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.

* 주거복지센터 총 106개소(지자체 주거복지센터 44개, 국가 주거복지센터 62개)

□ 이날 원 장관은 “아이를 키우는 가정의 주거 부담을 줄이고, 아이들이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꿈과 재능을 키울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것” 이라면서,

○ “안정된 주거공간의 양적 확대와 새로운 보금자리 정착을 위한 보증금·이사비 지원을 통해 내실 있는 주거지원을 추진할 것” 이라고 강조하였다.

□ 아울러, “주거지원 제도를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지원이 필요한 아동주거빈곤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, 주거상담부터 공공임대 이주, 정착지원까지 주거지원이 이뤄지도록 주거복지센터를 확대하는 등 빈틈없는 주거복지 전달체계를 구축할 것” 이라고 밝혔다.

2022. 7. 12.

국토교통부 대변인